

전남 11개 지자체, 농어촌 기본소득 추가 공모 도전장

화순·고흥·완도 제외 11개 시군구 소멸지역 접수 인구증가 효과...오는 14일 선정결과 주목

지역소멸 위기에 놓인 전남 11개 군(郡)이 정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 공모에 도전장을 냈다.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은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 월 15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해 지역활력 촉진을 이끄는 사업이다.

7일 전남도에 따르면 이날 마감된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 공모에 11개 군이 신청서를 접수했다.

공모 참여 지자체는 강진·구례·보성·장흥·함평·담양·영광·영암·장성·진도·해남 등이다. 전남 인구 감소 지역 16곳 가운데 이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추진 중인 신안·곡성군을 제외하면 공모에 참여하지 않은 지자체는 화순·고흥·완도군 등 3곳 뿐이다.

농림부는 이번 공모에서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 5곳을 추가 선정할 계획이다. 신청 대상은 전국 68개 인구감소지역 중 이미 시범사업이 진행 중인 10개 군을 제외한 58개 군이다.

서류·발표 평가는 8일부터 12일까지 진행되며, 최종 선정결과 발표는 14일로 예정됐다. 선정 지자체는 오는 7월부터 내년 12월까지 농어

촌 기본소득을 지급한다.

지자체들은 열악한 재정 상황 속에서도 인구증가 등 지역 활력 증진 효과를 기대하며 농어촌 기본소득 공모 참여를 결정했다.

실제, 앞서 지난해 10월20일 농어촌 기본소득 1차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신안의 경우 주민등록인구가 9월 3만8천888명에서 올해 4월 기준 4만2천124명으로 8.3% 증가했다.

지난해 12월3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로 추가 선정된 곡성군의 주민등록인구도 같은 기간 2만6천507명에서 2만7천644명으로 3.9% 늘었다.

신청 대상임에도 공모에 참여하지 않은 지자체들은 막대한 재정 부담을 이유로 내부 검토를 거쳐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 신청을 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어촌 기본소득 재원은 국비 40%, 도비 30%, 군비 30% 비율로 분담된다.

화순군 관계자는 "인구 6만명인 화순의 경우 사업 추진에 따른 소요예산이 1천600억원으로, 군비 부담분만 하더라도 48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며 "지역여건상 재원 확보가 어렵다고 판단해 농어촌 기본소득 공모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전남도 관계자는 "최종 공모 결과에 따라 신속하게 예산을 편성, 선정 지자체들이 원활히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양시원기자



동구 어버이날 기념 행사 어버이날을 하루 앞둔 7일 광주 동구청 대회의실에서 동구지역 어르신을 모시고 감사와 존경의 의미를 담아 직접 카네이션을 달아드리려는 행사가 열려 효행자와 장한 어머니, 노인복지기여자 등 표창패 수상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 동구청 제공)

5·18기록관, 5월 기념주간 확대 운영

11일 휴관일 개관·16-18일 운영시간 연장 기획전·영화상영·토론회 등 오일정신 조명

광주시 5·18민주화운동기록관은 7일 "제46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을 앞두고 휴관일에 전시실을 특별 개관하는 등 관람 시간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기록관은 휴관일인 11일 월요일에는 전시실을 특별 개관하고 16-17일에는 운영 종료 시간을 오후 9시와 오후 8시로 늦춘다.

기념일 당일인 18일에는 전시실을 특별 개관해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한다. 이번 확대 운영은 5·18의 의미를 되새기고자 기록관을 방문하는 국내외 관람객들에게 더

많은 관람 기회를 제공하고 세계기록유산인 5·18 기록물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기록관은 오일 정신을 다각도에서 조명하는 다양한 전시를 진행 중이다.

기획전시실에서는 8월10일까지 '광주 5·18 도시 정체성과 민주주의' 전시를 진행하고 영상 상영실에서는 5월31일까지 매일 '김근', '양림동 소녀', '1980, 로송과 쇼벨' 등 5·18 관련 영화 5편을 연속 상영한다.

지하1층 'VR체험존'에서는 가상현실(VR)을 통해 1980년 5월 광주를 경험할 수 있고 1-2층과 6층 상설전시실에서는 시민들의 기록과 증언을 비롯한 5·18기록물을 만나 볼 수 있다.

기록관은 또 8일 오후 1시30분에는 '5·18 기록

사진의 역사와 아카이브'를 주제로 한 학술 토론회를 열고 13일부터는 전일빌딩245 9층에서 '5·18시민일기: 가장 사적인 저항' 기획전시를 진행한다.

기록관은 관람객을 위한 전시 해설 서비스를 무료 운영한다.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시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30분까지 현장 접수하거나 사전 접수(062-613-8206)하면 된다.

김호균 5·18민주화운동기록관장은 "이번 기록관 확대 운영을 통해 더 많은 시민이 1980년 5월의 기록을 마주하며 그날의 숭고한 가치를 되새길 바란다"며 "5·18 기록물이 지닌 민주·인권·평화의 메시지를 널리 알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변은진기자

5월 전남 전통주에 담양 하심당 '석탄주'

은은한 과일향·부드러운 단맛 매력

전남도는 5월 이달의 전통주로 담양 하심당의 '석탄주(楷香酒)'를 선정했다. <사진>

석탄주는 '아까워서 삼키기 아쉬운 술'이라는 뜻을 지녔다. 향과 단맛이 뛰어나 입안에 머금으면 쉽게 넘기기 어렵다는 데서 유래했다. 다양한 고문헌에 '석탄향', '성탄향' 등의 이름으로 등장할 만큼 오랜 역사를 지닌 전통주다.

담양 하심당의 석탄주는 대대로 전승된 종자 집 비법서를 바탕으로 빚어낸 약주다. 전통 제조 기술에 송영종 대표가 10여년간 연구하고 다듬은 제조법을 더해 일정한 맛과 깊은 풍미를 구현했다.

과일향이 느껴지지만 실제 과일이나 첨가물은 전혀 들어가지 않았다. 오직 찹쌀과 누룩, 물 등 3가지 재료만 사용해 21일간 발효 과정을 거치며 자연스럽고 부드러운 단맛을 완성했다.

알코올 도수는 11도로 성인 소비자가 부담 없



이 즐기 좋은 전통주로 평가된다. 맛과 품질을 인정받아 2025년 남도 우리술 품평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

박상미 전남도 농식품유통과장은 "석탄주는 전통성과 대중성을 동시에 갖춘 우수 전통주"라며 "앞으로도 고유한 스토리와 색깔을 가진 지역 전통주를 지속해서 발굴·지원해 전남 전통주 산업의 경쟁력을 높여겠다"고 말했다.

/양시원기자

전남도,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 가동

9월까지 70여개 기관 참여

전남도가 여름철 폭염에 따른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15일부터 9월30일까지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를 본격 운영한다.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는 전남도와 질병관리청, 22개 시·군 보건소, 응급의료기관 46개 등 총 70여개 기관이 참여해 온열질환자 발생 현황을 감시하고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 발생

시 신속 신고 체계를 유지한다.

참여 기관은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온열질환자의 질병명, 발생 장소, 환자 상태 등을 보고하고, 시군 보건소·전남도·질병관리청이 관련 정보를 공유해 폭염에 따른 건강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온열질환은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열실신, 열부종 등 고온 환경에 장시간 노출될 경우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심하면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전국 온열질환자는 증가 추세로 전남에서도 매년 환자가 발생해 폭염 대응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지난해 전남 신고 온열질환자는 실외 발생이 86.4%로 높았다. 장소별로는 야외작업장 39.1% (149명), 논밭 21.0% (80명), 산·운동장 7.9% (30명) 순으로 나타나 야외활동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정광선 보건복지국장은 "폭염은 단순한 불편을 넘어 생명과 직결되는 재난"이라며 "폭염 시 외출을 자제하고 충분한 수분 섭취와 휴식을 취하는 등 건강수칙을 철저히 실천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재정기자

우리지역 농업인이 생산한 신선한 농산물
광주농협 로컬푸드직매장

광주광역시 북구 동문대로161(두암동)
http://farmersbank.nonghyup.com

지역민과 함께 성장하는 믿고 찾는 든든한
우리지역 희망동행 광주농협

- 본 점 : 250-5000
- 동 광 지 점 : 266-7144
- 오 치 동 지 점 : 264-0341
- 풍 향 지 점 : 512-4004

- 서 방 지 점 : 521-9731
- 충 효 지 점 : 266-6620
- 두 암 동 지 점 : 263-6619
- 산 수 동 지 점 : 232-6956

- 문 화 동 지 점 : 263-0537
- 중 흥 동 지 점 : 265-9676
- 문 흥 동 지 점 : 268-7011
- 매 곡 동 지 점 : 573-4111

- 밤 실 지 점 : 251-3701
- 일 곡 지 점 : 571-8000
- 용 주 지 점 : 528-4100
- 영 농 자 재 센터 : 267-5653

<하나로마트&로컬푸드직매장>

- 오 치 점 : 250-4661
- 동 광 주 점 : 269-5100
- 두 암 점 : 250-5127
- 충 효 점 : 266-6630